

■ 법률 칼럼

취업이민 첫 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노동승인)

취업이민 과정의 첫 단계로 흔히 Perm 이라고 통칭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허가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Labor Certification(노동승인)

잘 알려진 대로 취업이민은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단계와 실제 이민 신청의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미국 노동부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노동승인 신청을 심사합니다.

1. 구인광고의 적절성

취업이민의 첫 과정은 취업이민 스폰서가 미국 연방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영주권 신청 허가를 요청하는 노동승인 단계입니다. 노동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고용주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미국 내 거주자(미국 내에서 노동이 가능한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노동허가증 소지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적당한 지원자를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취업이민 신청자를 고용주 회사에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미 노동부는

고용주가 미국 내 거주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로 일정 기간 동안 그 직종에 대한 구인 광고를 신문이나 기타 매체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인광고를 보고 고용주 회사로 오는 모든 이력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현재 고용주 회사의 직종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합니다. 고용주는 이 모든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노동승인 과정은 미 노동부가 고용주가 적절하게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광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보내진 이력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답변을 했는지를 점검합니다.

2. 사업상의 필요(Business Necessity)

또 미 노동부는 노동승인 심사 과정에서 현재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고

용주 회사에 꼭 필요한 직종인가를 고려합니다. 만약 고용하려고 하는 직종이 고용주의 사업상 필요한 직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미 노동부는 노동승인 신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인 경우 그 위한 회사만을 위한 전문 회계사(CPA)를 고용하겠다고 노동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미 노동부는 그 직종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노동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직종의 한시성(finite)

노동부는 노동승인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지속적(permanent)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한시적(finite)으로만 필요한 직종인가를 고려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고용주의 비즈니스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노동부는 노동승인 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취업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위의 사항을 잘 고려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광고 요건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도록 신경쓰십시오. 그리고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을 직종을 정하실 때도 고용주 회사가 그 직종을 꼭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직종이 영구적 지속적으로 고용주 회사에 필요한지를 잘 고려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노동승인의 심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사(Audit)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잘 준수해 강화된 심사와 감사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권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교육

대학 진학 시 교사 추천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

대학 진학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교사의 추천서이다. 어느 경우에는 교사의 추천서 한장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대입 컨설팅 업체인 'IvyFocus' (ivyfocus.com)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은 두 개 이상의 추천서를 원한다. 학생의 장단점과 성격, 그리고 선호하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사의 추천서이기 때문이다.

교사의 추천서에는 성적에 대해 언급할 필요는 없는데, 부탁한 선생님이 학생을 잘 알지 못한다면 추천서에 다른 내용을 쓸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성적에 대해서만 자세히 언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추천서는 거의 무의미한 추천서가 되기 쉽다.

명문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어떤 추천서가 좋은 추천서인지를 알려주는 일화가 있다.

입학사정관이 한 학생의 입학서류를 검토하는데 그 학생은 좋은 GPA, 90% 이상의 test score를 가지고 있었지만 특별한 점이 눈에 띄지 않았다. 에세이 역시 좋은 에세이였지만 특별히 창의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파일의 제일 뒷부분에 있던 추천서의 첫장을 읽는 순간 웨이팅리스트에 넣으려고 했던 생각을 취소하게 되었고, 결국 학생은 입학허가서를 받게 되었다.

학생의 물리 선생님이 쓴 추천서였는데, '2000년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고, 그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했다면, 틀림없이 000에게 부탁을 했을 것이다. 이 학생이야말로 너희 대학에서 원하는 그런 학생이다.'라며 수업시간과 수업시간 이외의 이 학생의 평소태도를 칭찬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추천서가 말로 입학사정관 중

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훌륭한 추천서이다.

좋은 추천서를 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학생을 정말로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부탁할 것.
2. 수업시간에 가장 열심히 참여했던 수업, 숙제를 다 했으며 그 과목에 호기심을 보인 과목선생님에게 부탁할 것.
3. 현재 학년의 선생님을 선택할 것.
4. 전공하고 싶은 과목의 선생님을 선택할 것.
5. 추천서를 작성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부탁할 것(적어도 2-3주의 기간).
6. 본인의 이력서와 함께 응시하는 대학의 리스트를 드리고, 대학에서 하고 싶은 경험들에 대해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눌 것.
7. 감사의 편지를 적을 것.

선생님에게 추천서를 부탁하기 전에 학교 카운슬러와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카운슬러가 그 학교에 오랫동안 근무했다면 좋은 추천서와 나쁜 추천서를 써 주는 선생님들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고, 힌트를 주기도 하므로 잘 활용해야 한다.

만일 추천서 용지에 '학교선생님'이라고 적혀있지 않다면 선생님의 추천서를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경우는 대학은 학생이 잘 아는 사람에게 받는 추천서를 원하는데, 학생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음악선생님, 코치, 봉사 활동 담당자 등이 좋은 후보들이다.

조기 지원을 할 생각이라면, 9월 초에 추천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주는 것이 좋고, 정시 지원을 할 생각이면 10월 초에 주는 것이 좋다. 추천서를 잘 써주는 것으로 유명한 선생님들은 이미 한 묶음씩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